

상폐 가능성 낮지만... 신뢰추락 등 바이오 대장주 눈물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

증권위 결정, 향후 영업활동에 타격
거래소 상폐 실질심사 15일간 진행
계약·바이오업계 전반 불뚱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물고 올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 주식은 곧바로 상장폐지 심판대에 올랐다. 삼성바이오가 선진국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삼성바이오의 향후 영업활동에 미칠 타격도 무시할 수 없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위 판정에 불복하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들어간 삼바

증권위는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삼성바이오 증가는 전일보다 6.7% 오른 33만 4500원에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15일(영업일 기준) 진행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 소집 후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최소 42 영업일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속성' 여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밝혀지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산업은행이 금융지원 등 구조 조정에 나선 것이 '회사 경영 지속성' 평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망산업인 바이오 기업인데다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서 "여러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사 주식은 국내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로 가지 않도록 적

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 8562주에 달한다.

◆토종 바이오 대표주자의 몰락

이번 판결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실이다.

삼성바이오의 수출 비중은 70%가 넘는다. 해외 수주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의 사업구조상 이번 결론이 삼성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삼성바이오의 주요 고객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제약사들이 기업 윤리기준을 엄격히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면 추가 수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에피스는 올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베네팔리와 플라사비를 앞세워 유럽에서만 4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판매고를 올렸다. 처방받은 환자만 10만 명이 넘는 삼성에피스는 지난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일람디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출시해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허셉틴(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윤리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약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증권위 조치가 향후 삼성에피스 행보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제약업계 전반으로 불뚱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표주자의 몰락"이라며 "한국 제약, 바이오업체들이 기술수출이나 제휴 등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의 증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도 예고됐다.

이날,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증권위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세경·손영미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바 논란에도 바이오주 상승세... 삼성그룹주는 약세

회계 논란 종지부, 긍정적 시그널로 삼바 거래 재개 땀 업종 분위 개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도 바이오주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반면 삼성그룹주는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다.

14일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대비 6.70% (2만1000원) 오른 33

만4500원에 장을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권위의 발표 이전에 끝난 주식시장에선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이 나오더라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바이오주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다. 셀트리온(3.74%)을 비롯해 셀트리

온헬스케어(3.30%), 신라젠(2.07%), 코오롱 티슈진(0.54%), 셀트리온제약(2.20%) 등이 올랐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바이오업종 연구원은 "증권위의 결론과 상관없이 바이오주 회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이오주 전반에 회복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장폐지만 되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 이후 업종 전체 분위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0.90% 하락한 4만41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삼성물산(-0.47%), 삼성생명(-0.86%), 삼성에스디에스(-2.14%), 삼성화재(-0.35%) 등이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바이오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고의적 분식회계가 삼성 경영승계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삼성그룹주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또 삼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도 상당부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바이오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은 삼성그룹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 사업별 성과에 따라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미 기자 sonumji301@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일자리 창출은 후퇴

일자리 정책에도 채용 상승세 멈춰 장애인 등 소외 인력 특수채용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증하던 신규 채용은 올 들어 상승세가 멈췄다.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수채용은 오히려 절반 가량 줄어 들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 국토부 산하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8곳의 신규 정규직 채용인원은 총 196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채용인원(2296명)보다는 336명 적은 수준이다. 4분기 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에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용 인원에는 단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인원까지 포함돼 있어 단위가 소수점까지 변했다. 이들 기업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신규 채용을

전년 대비 배 수준으로 늘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공약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비정규직 철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출범 직후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모양새였다. 이들 기업은 2016년 1248.5명 신규 채용에서 2017년 2296.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다가 올해는 오히려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등 일자리 창출에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16.5명에서 올해 40명 채용으로 3분의 1 가량 신규 채용 인원을 줄였다. 같은 기간 한국공항공사의 신규 채용 인원은 198명에서 107명,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116.25명에서 6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31명에서 269명으로 감소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신규 채용 인원을 두 배 가량 줄였기 때문에 연간 합산으로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 인력에 대한 특수채용도 턱없이 부족했다. 2018년 3분기까지 공기업 8곳의 장애

인 신규 채용 인력은 43.5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2.2%에 불과하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 채용 1126명 중 1명 만이 장애인 채용이어서 비율이 0.001%에 그친다. 이 기업은 지난해만 해도 장애인 채용 인원이 11명이었다가 올해는 아직까지 한 명 채용에 그쳤다.

한국감정원도 50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1명만이 장애인으로 전체 2% 수준이다. 감정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채용이 '제로(0)'였다. LH도 269명 채용에 장애인은 8명(3%) 뿐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채용은 더 가뭄이었다. 올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의 시간선택제 채용 인원은 총 7명으로 전체 신규 직원의 0.4%에 불과하다. 시간선택제 채용 인원은 지난 2014년 59명, 2015년 51명, 2016년 17명, 2017년 17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LH는 2014년부터,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채용이 한 건도 없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신규채용(정규직) 인원 추이>

/자료=알리오

기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3Q
도로공사	신규채용	166.5	176	182	188	259
	시간선택제	2	0	0	0	0
	장애인	7	2	3	2	1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채용	18.5	16.75	15	36.75	46.25
	시간선택제	1	1	0	1	7
	장애인	0.5	0.75	0	0.75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채용	109,625	67,75	78,75	116,25	63
	시간선택제	6	5	5	7	0
	장애인	4	4	3	1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규채용	53	96	7.5	116.5	40
	시간선택제	6	6	1	5	0
	장애인	28.5	44	2.5	45.5	14
한국감정원	신규채용	45	51	45	50	50
	시간선택제	4	4	4	4	0
	장애인	0	0	0	0	1
한국공항공사	신규채용	156.75	80.25	176.25	198	107
	시간선택제	10	3	7	0	0
	장애인	4	2.75	11	9	2
한국철도공사	신규채용	505	319	604	1,060	1,126
	시간선택제	30	32	0	0	0
	장애인	6	2	11	11	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채용	5	10	140	531	269
	시간선택제	0	0	0	0	0
	장애인	0	0	4	13	8
계	신규채용	1059,375	816,75	1248,5	2296,5	1960,25
	시간선택제	59	51	17	17	7
	장애인	50	55.5	34.5	82.25	43.5

근 2~3년 내 시간선택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도

모두 올해 3분기까지 시간 선택제 채용이 제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만 지난해 1명 채용에서 올해 7명으로 늘렸다.

/채신화 기자 csh9101@